Ⅲ 시대별 특징

1950

한국 현대사에서 1950년대 초는 1950년 발발한 6·25전쟁으로 얼룩진 시기였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사회 곳곳에서 '전후'의 풍경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문화영화의 제작이 활기를 띠었는데, 공보실 선전국 영화과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들 영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를 고루 다루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첫째,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는 〈상기하자 6·25〉(1957)와 전쟁미망인의 삶을 소개하는 〈새로운 출발〉(1957), 반공의 테마를 국제적 차원에서 다룬 〈제5차 아세아반공대회〉(1959)와 〈두 세계의 사람들〉(1959) 등이 제작되었고, 〈자손만대에 고하노라〉(1957), 〈3·1절 특보〉(1958)와 같이 반일의 기조 속에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작품들도 만들어졌다.

둘째, 〈월남 대통령 방한〉(1957), 〈터키 수상 내한〉(1958), 〈자유의 벗 터키〉(1958), 〈델레스 내한〉(1959), 〈제3회 아세아올림픽〉(1958), 〈우리 예술사절단 동남아로〉(1958), 〈한국을 찾아온 예술가들〉(1959)처럼 외교활동을 화면에 담거나 국제 친선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더불어,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업적과 단장을 소개하는 〈UNKRA의 업적〉(1957)과 〈콜터 장군〉(1958), 한·미경제조정관실(OEC)의 활동을 다룬 〈OEC와 한국부흥〉(1958) 등이 제작 목록을 채우기도 하였다.

셋째, 경제 및 산업 재건을 소재화한 것으로는 〈우리의 새 살림〉(1958), 〈우리의 공업〉(1958), 〈뻗어가는 도로〉(1959), 〈둑(발전은 협력에서)〉(1959) 등이 있었으며, 특히 〈보리를 기르는 새 비료〉(1958), 〈뽕 따러 가세〉(1958), 〈아카시아를 심자〉(1958), 〈산림녹화〉(1958), 〈한국의 어장〉(1958), 〈누에치기〉(1959), 〈새로운 돼지울〉(1959)과 같이 교육적 차원에서 농업·임업·어업·축산업 분야를 다룬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넷째, 국민의 실생활에 관한 내용들도 문화영화에 반영되었다. 교통·통신·방송 관련 영화로는 〈교통안전〉(1958), 〈십자로의 교통순경〉(1959), 〈우편선〉(1958), 〈우리의 우편〉(1958), 〈자유의 소리〉(1957) 등이 있었다. 또한 교육에 관한 것으로는 〈새로운 교육〉(1959), 〈가정교도원〉(1959), 〈간편한 육아법〉(1959), 〈건강한 어머니와 어린이〉(1959) 등이, 식생활과 위생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식생활 개선〉(1959), 〈개량 부엌 만들기〉(1959), 〈새로운 위생 우물 파기〉(1959), 〈또 하나의 적 모기를 없애자〉(1959) 등이 있었다.

다섯째, 〈한국의 인상〉(1953), 〈한국의 고대 건축〉(1957), 〈무궁화 새로 피네〉(1958), 〈서울의 하루〉(1958), 〈순종황제 장례식〉(1958), 〈식물원을 찾아서〉(1958), 〈민속예술제〉(1958), 〈아이스쇼〉(1958), 〈대관령의 겨울〉(1959), 〈원각사 개관 예술제〉(1959) 등과 같이, 문화 방면의 내용을 제재로 삼은 작품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이밖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념하여 4부로 기획된 '약진 10년'(1958) 시리즈와 제작 당시의 국회 조직 및 활동 양상 등을 기록한 〈우리의 국회〉(1959) 등을 통해서도 1950년대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민요·만담·무용 관련 장면들을 포함시킨 〈내 강산 좋을시고〉(1957), 실존 인물의 수기를 바탕으로 고백적 내레이션과 단막극 형식을 결합시킨 〈박 경사의 수기〉(1958), 당시로서는 특이하게 애니메이션 형식을 취한 〈쥐를 잡자〉(1959) 등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상기하자 6·25

감독 윤기범
재생시간 24분 9초
관리번호 CEN0002040~CEN0002042



새로운 출발

감독 김영권
재생시간 10분 47초
관리번호 CEN0002038



제5차 아세아반공대회

감독 정연구
재생시간 20분 50초
관리번호 CEN0002228



두 세계의 사람들

감독 최창균
재생시간 8분 21초
관리번호 CEN0002185



자손만대에 고하노라

감독 이형표
재생시간 9분 49초
관리번호 CEN0002052



3·1절 특보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8분 23초
관리번호 CEN0002112



월남 대통령 방한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8분 31초
관리번호 CEN0002047~CEN0002048



터키 수상 내한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10분 3초
관리번호 CEN0002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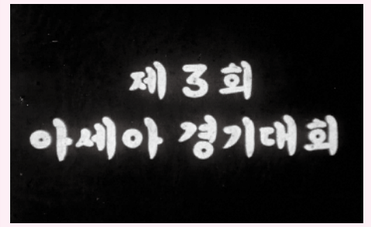
자유의 벗 터키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10분 03초
관리번호 CEN0002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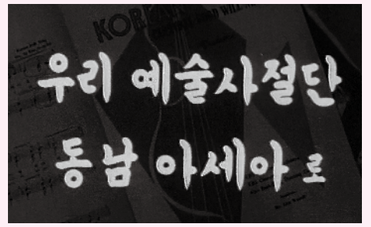
델레스 내한

감독 정연구
재생시간 4분 24초
관리번호 CEN0002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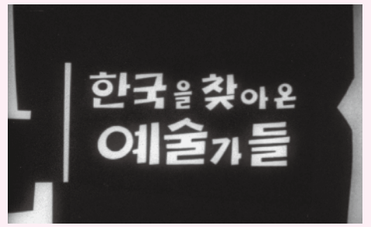
제3회 아세아올림픽

감독 정연구
재생시간 21분 15초
관리번호 CEN0002150



우리 예술사절단 동남아로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20분 53초
관리번호 CEN000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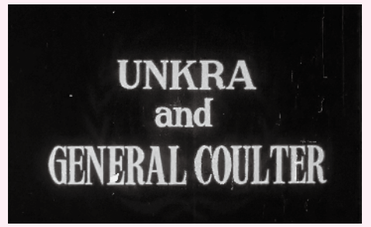
한국을 찾아온 예술가들

감독 김행오
재생시간 21분 42초
관리번호 CEN0002312



UNKRA의 업적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10분 26초
관리번호 CEN0002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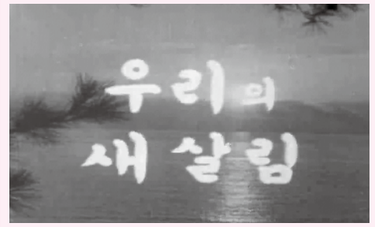
콜터 장군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8분 41초
관리번호 CEN0002154



OEC와 한국부흥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9분 45초
관리번호 CEN0002141



우리의 새 살림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36분 39초
관리번호 CEN0002135~CEN0002138



우리의 공업

감독 이형표
재생시간 27분 4초
관리번호 CEN0002021~CEN0002023



뻗어가는 도로

감독 미상
재생시간 8분 28초
관리번호 CEN0002739



둑(발전은 협력에서)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22분 3초
관리번호 CEN0002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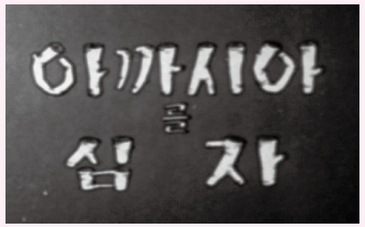
보리를 기르는 새 비료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13분 27초
관리번호 CEN0002106



뽕 따러 가세

감독 임학송
재생시간 18분 13초
관리번호 CEN0002160



아카시아를 심자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14분 4초
관리번호 CEN0002133



산림녹화

감독 이형표
재생시간 16분 54초
관리번호 CEN0002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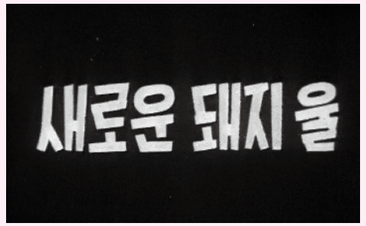
한국의 어장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16분 52초
관리번호 CEN0002056



누에치기

감독 강대철
재생시간 15분 36초
관리번호 CEN0002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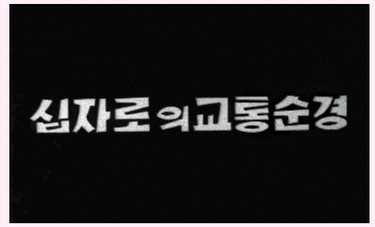
새로운 돼지울

감독 유병희
재생시간 20분 13초
관리번호 CEN000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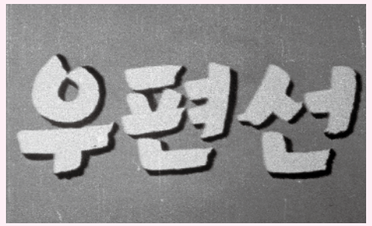
교통안전

감독 양한석
재생시간 3분 12초
관리번호 CEN0002076



십자로의 교통순경

감독 유병희
재생시간 14분 35초
관리번호 CEN0002210~
CEN0002211



우편선

감독 이형표
재생시간 13분 10초
관리번호 CEN0002051



우리의 우편

감독 미상
재생시간 4분 30초
관리번호 CEN0002244



자유의 소리

감독 김영권
재생시간 10분 34초
관리번호 CEN0002064



새로운 교육

감독 라한태
재생시간 20분 47초
관리번호 CEN0002200~
CEN0002201



가정교도원

감독 라한태
재생시간 19분 58초
관리번호 CEN0002172



간편한 육아법

감독 이맹표
재생시간 10분 7초
관리번호 CEN0002174



건강한 어머니와 어린이

감독 최창균
재생시간 18분 20초
관리번호 CEN0002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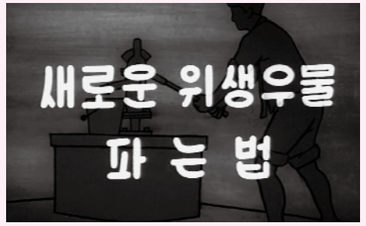
식생활 개선

감독 김성인
재생시간 5분 10초
관리번호 CEN0002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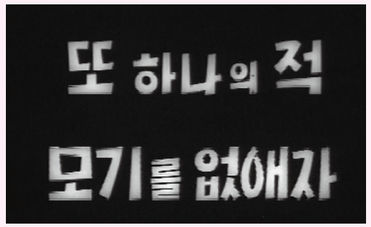
개량 부엌 만들기

감독 김상봉
재생시간 12분 3초
관리번호 CEN0002179



새로운 위생 우물 파기

감독 최창균
재생시간 13분 23초
관리번호 CEN0002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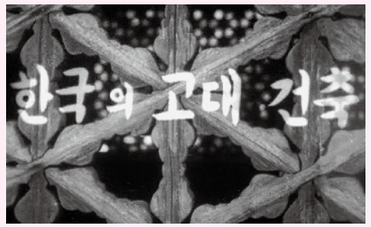
또 하나의 적 모기를 없애자

감독 최창균
재생시간 9분 14초
관리번호 CEN0002181



한국의 인상

감독 이형표
재생시간 6분 3초
관리번호 CEN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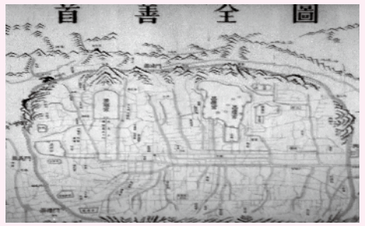
한국의 고대 건축

감독 김광이
재생시간 19분 14초
관리번호 CEN0002060



무궁화 새로 피네

감독 박희영
재생시간 26분 32초
관리번호 CEN0002097



서울의 하루

감독 오영진
재생시간 22분 51초
관리번호 CEN0002043~
CEN000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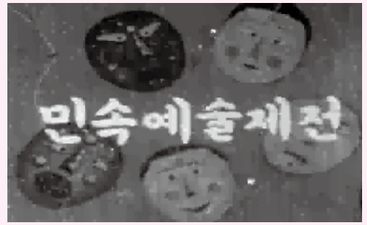
순종황제 장례식

감독 미상
재생시간 7분 19초
관리번호 CEN0002168



식물원을 찾아서

감독 김상봉
재생시간 9분 42초
관리번호 CEN0002110



민속예술제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9분 41초
관리번호 CEN0002098



아이스쇼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7분 13초
관리번호 CEN0002122



대관령의 겨울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9분 47초
관리번호 CEN0002187



원각사 개관 예술제

감독 라한태
재생시간 24분 22초
관리번호 CEN0002221



약진 10년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32분 52초
관리번호 CEN0002127~
CEN0002130



우리의 국회

감독 윤기범
재생시간 10분 13초
관리번호 CEN0002212



내 강산 좋을시고

감독 이형표
재생시간 27분 34초
관리번호 CEN0002036



박 경사의 수기

감독 유병희
재생시간 23분 25초
관리번호 CEN0002107~
CEN0002109

1960

1960년대에는 줄곧 산업화·도시화·근대화 정책이 빠르고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동시에 1960년대는 많은 편수의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편, '5·16쿠데타'(1961) 직후 군사 정부에 의해 국책 영화 제작의 메카가 기존의 대한영화사에서 국립영화제작소로 대체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만들어진 문화영화 속에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상이 다채롭게 담겨졌다.

첫째, 정치 및 안보 분야의 이슈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초에는 〈혁명공약 종합판〉(1961), 〈5·16혁명 1주년을 되돌아보다〉(1962),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1962), 〈새나라 건설을 위하여〉(1962), 〈혁명 90일〉(1962) 등 5·16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작품군이 등장하였다. 또한, '반공'이라는 기치 하에 6·25전쟁의 교훈과 방첩 및 국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영화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맹호와 청룡〉 1집(1965)과 2집(1966), 〈백마부대〉(1966), 〈메콩강의 비둘기〉(1967) 등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견 및 활약상을 담은 것들도 편수를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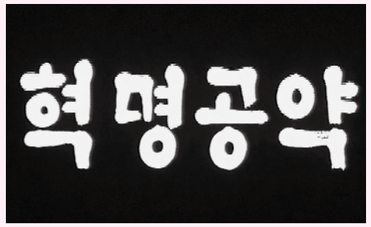
둘째,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원수 등 외국 유력 인사의 방한 소식을 전하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며,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65년에는 문화영화를 통해서도 양국의 관계나 회담의 과정이 전해졌다. 〈한일회담〉(1965), 〈구원을 씻고 내일을 위하여〉(1965)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자립경제·협동조합·산업박람회·공업표준화·기술 혁신·밀수 근절·증산 운동·저축과 납세·물자 및 에너지 절약 등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이 문화영화 속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싸우며 건설하자〉(1968)와 같이 경제 발전이라는 테제에 반공이라는 키워드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도 범죄 예방·재해 극복·생활 계량·건강 관리·교육 개선·공중도덕 준수·가족 계획 수립과 의례 간소화 등을 주제로 한 다수의 문화영화가 제작되었다. 이들 영화는 대개 국민에 대한 계몽과 계도를 목표로 하였던 바, 〈112〉(1963)처럼 애니메이션 형식을 띠거나 〈나라살림 내집살림〉(1967)과 같이 대중성을 극대화한 작품들도 종종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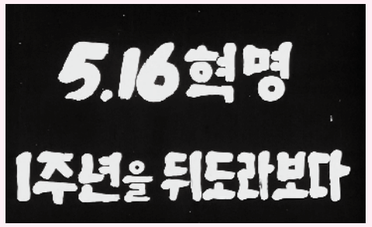
다섯째, 한국의 날씨와 풍토·유물과 유적·지역적 특수성·생활양식 및 전통문화·대중예술 및 놀이문화·기타 공연 및 체육 행사 등을 제재로 삼아 관련 장면을 화면에 담은 작품들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들 영화는 대개 국내 및 해외 홍보물로 활용되었다. 이들 작품 중에는 각각 '산의 기적', '사랑의 봉사', '보고 가는 마을', '협동의 마을'을 소재화하여 연작으로 구성된 '향도미담' 시리즈(1962)도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대 문화영화는 이러한 내용의 다양성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특징을 보였다. 영화의 시간적 길이뿐 아니라 다큐멘터리적 요소와 내러티브적 요소의 결합 양상이 다양화되었고, 컬러 필름으로 촬영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문자 및 그래픽 이미지가 사용되거나 아예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수도 늘었던 것이다. 더욱이 〈피어린 600리〉(1962), 〈열반〉(1964), 〈초혼〉(1965) 등과 같이, 영화의 미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을 부각시켜 국내외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혁명공약 종합판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14분
관리번호 CEN000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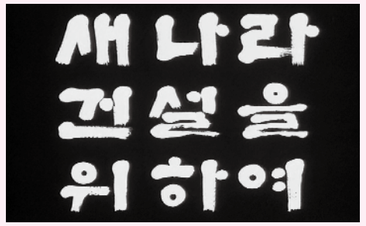
5.16혁명 1주년을 되돌아보다

감독 한호기
재생시간 10분 55초
관리번호 CEN0002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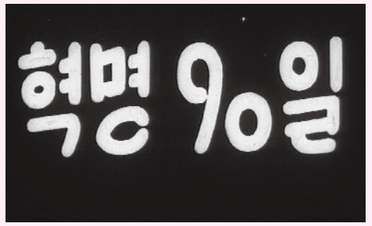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감독 강래식
재생시간 6분 20초
관리번호 CEN0002490



새나라 건설을 위하여

감독 임학송
재생시간 66분 37초
관리번호 CEN0002510~ CEN0002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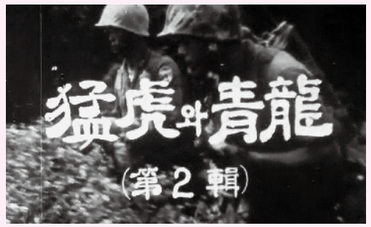
혁명 90일

감독 한호기
재생시간 16분 43초
관리번호 CEN0002571



맹호와 청룡(1집)

감독 강대철
재생시간 19분 37초
관리번호 CEN0002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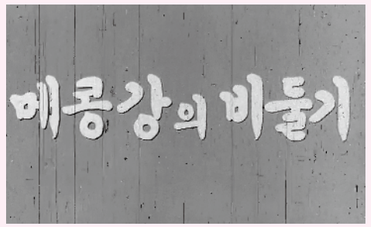
맹호와 청룡(2집)

감독 강대철
재생시간 19분 1초
관리번호 CEN000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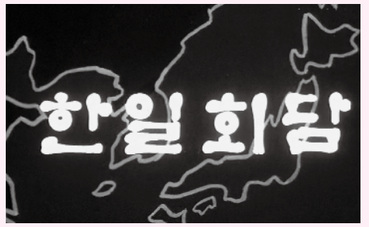
백마부대

감독 이광수
재생시간 18분 17초
관리번호 CEN0002934



메콩강의 비둘기

감독 강대철
재생시간 11분 15초
관리번호 CEN0003170



한일회담

감독 황왕수
재생시간 14분 36초
관리번호 CEN0002853~ CEN0002854



구원을 씻고 내일을 위하여

감독 황왕수
재생시간 12분 7초
관리번호 CEN0002899~ CEN000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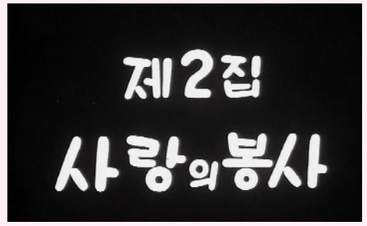
싸우며 건설하자

감독 이정실
재생시간 9분 26초
관리번호 CEN0003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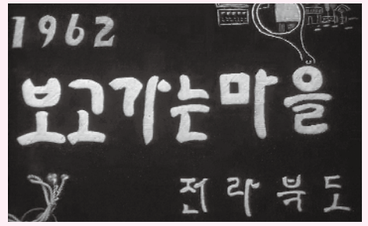
향토미담 1집(산의 기적)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10분 26초
관리번호 CEN0002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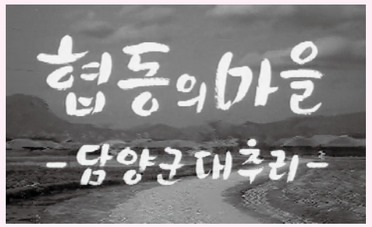
향토미담 2집(사랑의 봉사)

감독 강대철
재생시간 10분 7초
관리번호 CEN0002556



향토미담(보고 가는 마을)

감독 최봉암
재생시간 8분 42초
관리번호 CEN0002557



향토미담 (협동의 마을)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8분 20초
관리번호 CEN0002554



열반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20분 28초
관리번호 CEN0002788~ CEN0002789



초혼

감독 양종해
재생시간 20분 56초
관리번호 CEN0002917~ CEN0002918

1970

국제 정세의 변화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유신체제가 수립되고 중공업 육성책이 도입된 1970년대에는, 문화영화 속에도 이러한 외부 환경과 정책 기조가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었다. 그리고 극장 상영 문화영화 제작이 국립영화제작소로 일원화 된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성격이 더욱 공고화되어 갔다.

첫째, 유신이 선포될 즈음에 〈보람찬 내일〉(1972), 〈겨레의 횃불〉(1972), 〈영광의 그날까지〉(1972) 등과 같이 국가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나온 바 있었고, 이후에는 '유신의 횃불' 시리즈가 1970년대 말까지 3집에 걸쳐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훌륭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이 여전히 문화영화의 핵심적 소재로 활용되었다. '봉고 가봉공화국 대통령 방한'(1975) 시리즈는 현재의 동정을, '겨레의 지도자' 시리즈는 1960년대의 활동상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들이라 할 만하다.

둘째,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1970년대 초에는 〈남과 북의 대화〉(1972), 〈판문점〉(1973) 등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유신체제가 확립된 뒤에는 6·25전쟁 경험과 남북 대치 상황을 상기시키고 반공 이념의 기반 위에 국가 안보 및 국방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다시금 주류를 이루었다. 〈자유의 수난〉(1974), 〈해군사관학교 제31기 순항 훈련〉(1976), 〈상기하자 6·25〉(1977), 그리고 예비군 창설 10주년 기념작 〈망전필위: 예비군〉(1978)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경제 성장과 국토 개발을 다룬 작품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예컨대, 〈산업시리즈(시멘트공업)〉(1970)를 비롯한 1970년대 초의 '산업시리즈'를 통해서는 산업 각 분야의 발전상이 소개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호남·남해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영산강, 안동댐 등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근대화된 지역 곳곳의 달라진 풍경이 전시되었다.

넷째, 국민의 모범적 삶을 다루거나 생활 개선을 유도하는 작품들도 적지 않은 편수를 채웠다. '숨은 일꾼들'(1971) 시리즈나 '새마을 가족'(1975) 시리즈는 전자에, 저축 홍보 영화인 〈25일〉(1971)을 비롯하여 〈물〉(1971), 〈돼지〉(1973), 〈호두나무〉(1973), 〈계량과 생활의 과학화〉(1973), 〈쌀〉(1975)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작품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전자에는 1970년대 초의 '민요와 만담' 시리즈나 '한국미술 2000년 전' 시리즈가, 후자에는 〈한국의 어린이들〉(1973)이나 〈한국의 종교〉(1978) 등이 해당된다.

1970년대 문화영화는 대부분의 작품이 컬러 필름으로 촬영되었다는 점에서도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는 당시 국립영화제작소가 안정적인 제작 예산과 더불어 국내 최고의 컬러 현상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1970년대 한국 문화영화의 컬러화는, 텔레비전 방송의 컬러 시대가 1980년대 들어서야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특별히 다가온다.

아울러, 1970년대 문화영화 중에는 시리즈로 기획·제작되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다. 적게는 2~3편, 많게는 10편 이상의 영화들이 시리즈로 묶이곤 하였는데, 이 역시도 동시기 가장 유력한 매스-미디어로 자리 잡아 가던 텔레비전의 영향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소형 브라운관이 아닌 극장 스크린을 통해 영사되는 문화영화만의 특징도 겸비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보람찬 내일

감독 강대철
재생시간 8분 55초
관리번호 CEN0003607



겨레의 횃불

감독 강대철
재생시간 16분 27초
관리번호 CEN0003678



영광의 그날까지

감독 박정근
재생시간 8분 23초
관리번호 CEN0003696



유신의 횃불

감독 이창호
재생시간 22분 53초
관리번호 CEN0004398~
CEN0004399



봉고 가봉공화국 대통령 방한

감독 김기풍
재생시간 49분 36초
관리번호 CEN0004070~
CEN0004077



겨레의 지도자 1집

감독 박정근
재생시간 1시간 30분 22초
관리번호 CEN0004403~
CEN0004414



겨레의 지도자 2집

감독 박정근
재생시간 1시간 14분 39초
관리번호 CEN0004428



겨레의 지도자 3집

감독 박정근
재생시간 2시간 20분 44초
관리번호 CEN0004447~
CEN0004463



겨레의 지도자 4집

감독 박정근
재생시간 47분 22초
관리번호 CEN0004466~
CEN0004473



남과 북의 대화

감독 윤남
재생시간 10분 1초
관리번호 CEN0003669



판문점

감독 윤남
재생시간 24분 21초
관리번호 CEN0003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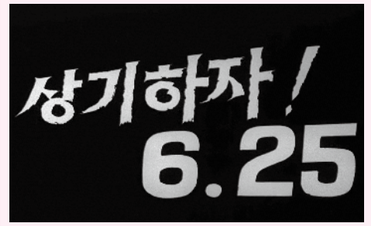
자유의 수난

감독 박정근
재생시간 22분 38초
관리번호 CEN0004374



해군사관학교 제31기 순항 훈련

감독 이지완
재생시간 31분 8초
관리번호 CEN0004152



상기하자 6·25

감독 윤남
재생시간 14분 54초
관리번호 CEN0004174



망전필위: 예비군

감독 이지완
재생시간 10분 38초
관리번호 CEN0005398



산업시리즈 (시멘트공업)

감독 이지완
재생시간 8분 13초
관리번호 CEN0003511



산업시리즈 (플라스틱산업)

감독 황왕수
재생시간 10분 18초
관리번호 CEN0003527



숨은 일꾼들(분교 교사 박기오)

감독 박희준
재생시간 3분 7초
관리번호 CEN0003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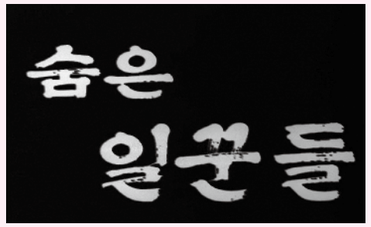
숨은 일꾼들(기관사 이종구)

감독 박희준
재생시간 2분 4초
관리번호 CEN0003579



숨은 일꾼들(집배원 김종연)

감독 박희준
재생시간 2분 2초
관리번호 CEN0003579



숨은 일꾼들(최연욱)

감독 박희준
재생시간 2분 50초
관리번호 CEN0003579



새마을 가족

감독 이지완
재생시간 15분 53초
관리번호 CEN004341~CEN004342



25일

감독 이규임
재생시간 27분 34초
관리번호 CEN0003476



물

감독 박희준
재생시간 9분 10초
관리번호 CEN0003633



돼지

감독 박순구
재생시간 32분 49초
관리번호 CEN0003760



호두나무

감독 김기풍
재생시간 25분 49초
관리번호 CEN0003805



계량과 생활의 과학화

감독 도상선
재생시간 10분 34초
관리번호 CEN0003823



쌀

감독 이창효
재생시간 9분 25초
관리번호 CEN0004018



민요와 만담

감독 황왕수
재생시간 8분 7초
관리번호 CEN0003605



한국미술 2000년전

감독 이지완
재생시간 31분 38초
관리번호 CEN0003807~CEN0003809



한국의 어린이들

감독 이광수
재생시간 22분 47초
관리번호 CEN0003815



한국의 종교

감독 김기풍
재생시간 19분 11초
관리번호 CEN0006968

1980

1980년대는 군사 정권 연장에 따른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의 존속, 민주화 운동의 거국적 전개, 경제 지표의 상승과 노사 갈등의 표면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 개방화와 세계화 등이 점철된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흔적은 동시기 문화영화에도 묻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만들어져 극장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 문화영화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동정, 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 헌법,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국가 안보와 대북 관계에 관해서는 정기적 국방 행사 및 군사 훈련이나 1985년부터 재개된 남북 적십자 회담 등이 다루어졌다. 아울러, 해외 교류 및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해외 정상의 한국 방문 소식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국운 개척의 영도자〉(1980), 〈최규하 대통령 취임〉(1980),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1981), 〈새 시대 새 기틀〉(1980), 〈펼쳐지는 민주정치〉(1981), 〈평화통일의 의지〉(1981), 〈건군 33돌〉(1981), 〈한미 정상회담〉(1981) 등을 통해 확인되듯, 관련 작품들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활발히 제작되었다.

둘째, 경제 면에서는 산업 각 분야의 발전상과 댐과 도로, 지하철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에 관한 소식이 담겨졌다. 〈대청댐〉(1981), 〈레미콘〉(1982), 〈88올림픽 고속도로〉(1983), 〈지하철 3·4호선〉(1985) 등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인플레를 잡는 길〉(1982), 〈기름 한 방울〉(1984), 〈삼촌과 저금통장〉(1985) 등 물가 안정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저축의 효과를 강조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셋째, 사회 면에 있어서는 각종 사건·사고 관련 소식을 담은 작품들을 포함하여, 국민적 화합과 상호 협동, 범죄 예방 및 근절, 농어촌의 균형 발전, 미풍양속 유지, 교통질서 준수, 인구 증가 억제 등에 대한 당위적 명제를 주제로 삼은 작품들이 골고루 만들어졌다. 1980년대 들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두발 및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던 바, 바람직한 대학 생활이나 청소년 탈선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제시한 문화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내일의 주역들〉(1981), 〈자율과 책임〉(1983), 〈통금해제〉(1983), 〈선진 시민〉(1984), 〈공경하는 마음〉(1986), 〈젊음의 광장〉(1987) 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넷째, 문화 면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와 지역적 특색,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전통, 수준 높은 문화재 및 예술품 등을 소개하는 작품들이 여전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풍 81〉(1981), 〈한국의 무속〉(1982), 〈씨름〉(1983) 등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행사를 홍보하는 문화영화도 기획·제작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제10회 서울 하계 아시아경기대회(1986)와 제24회 서울 하계 올림픽(1988) 등 국제적 규모의 거대 체육 행사들이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었기에, 〈86 서울 아시아드〉(1986), 〈지구촌의 축제〉(1988)와 〈88 서울 축제〉(1989) 등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띤 작품들이 선보여지기도 하였다.

한편, 1980년대 문화영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양식적 특징을 띠었다. 첫째, 1970년대에 이어 거의 모든 작품이 컬러 필름으로 제작되었으며, 필름 규격은 35mm와 16mm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35mm가 주류를 차지하다가 갈수록 16mm의 비중이 높아졌고 간혹 VTR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시간적 분량에 있어서는, 극장 의무상영 문화영화의 길이가 최소 '7분 이상'이라는 규정 하에 10분대의 작품이 다수를 점하고 20분대가 그 뒤를 잇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10분 이하의 편수가 점차 많아졌다. 셋째, 대통령의 동정이나 새마을운동의 전개 양상, 예술계와 체육계의 행사 등이 시리즈물을 기획되곤 한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 문화영화는 단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넷째, 내레이션과 자막이 첨가된 기록영화 풍의 작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거나 보는 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차원에서 단막극 양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운 개척 영도자

감독 김성인
재생시간 16분 3초
관리번호 CEN0004292



최규하 대통령 취임

감독 미상
재생시간 28분 6초
관리번호 CEN0006765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

감독 윤남
재생시간 20분 4초
관리번호 CEN0004313



새 시대 새 기틀

감독 김기풍
재생시간 13분 23초
관리번호 CEN0005600



펼쳐지는 민주정치

감독 김상연
재생시간 12분 3초
관리번호 CEN0004330



평화통일의 의지

감독 윤남
재생시간 12분 46초
관리번호 CEN0004363



건군 33돌

감독 윤남
재생시간 13분 43초
관리번호 CEN0004856



한미 정상회담

감독 한호기
재생시간 1시간 49초
관리번호 CEN0007005



대청댐

감독 김상연
재생시간 9분 20초
관리번호 CEN0005123



레미콘

감독 김상연
재생시간 13분 43초
관리번호 CEN0005351



88올림픽 고속도로

감독 박주영
재생시간 6분 55초
관리번호 CEN0006824



지하철 3·4호선

감독 김기풍
재생시간 19분 22초
관리번호 CEN0006736



인플레를 잡는 길

감독 박순구
재생시간 14분 6초
관리번호 CEN0006599



기름 한 방울

감독 박주영
재생시간 7분 8초
관리번호 CEN0005001



삼촌과 저금통장

감독 최경옥
재생시간 8분 3초
관리번호 CEN0005582



내일의 주역들

감독 김상연
재생시간 20분 51초
관리번호 CEN0005070



자율과 책임

감독 윤성기
재생시간 10분 52초
관리번호 CEN0006619



통금해제

감독 박순구
재생시간 10분 11초
관리번호 CEN0006797



선진 시민

감독 윤성기
재생시간 15분 9초
관리번호 CEN0005659



공경하는 마음

감독 이영호
재생시간 4분 49초
관리번호 CEN0004896



젊음의 광장

감독 이기영
재생시간 6분 9초
관리번호 CEN0006678



국풍 81

감독 김항원
재생시간 15분 29초
관리번호 CEN0004971



한국의 무속

감독 도상선
재생시간 18분 32초
관리번호 CEN0006914



씨름

감독 김항원
재생시간 18분 23초
관리번호 CEN0005793



86 서울 아시아드

감독 한호기
재생시간 20분 31초
관리번호 CEN0006821



지구촌의 축제

감독 도상선
재생시간 18분 35초
관리번호 CEN0006731



88 서울 축제

감독 이기영
재생시간 21분 6초
관리번호 CEN0006827

1990

1990년대는 냉전의 종식과 글로벌 시대의 개막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던 동시에 'IMF사태'라는 거대한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는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 격동의 시기였다. 그리고 기나긴 역사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던 문화영화 속에도 이러한 시대의 자취가 새겨지게 되었다.

첫째, 정치 면에서는 이전 시기처럼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나 국제 행사 참여 등의 동정을 기록하거나 1992년에 있었던 제14대 대통령 선거와 1997년에 있었던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및 유의 사항 등을 알리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노태우 대통령 UN 연설〉(1992),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와 순방 외교'(1995) 시리즈, '김대중 대통령 일본 방문'(1998) 시리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장편으로 만들어진 〈시련과 영광〉(1995), 〈아 대한민국〉(1998) 등과 같이 광복 50주년과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작품들도 기획·제작되었다. 반면에 북한과의 대치 국면 상황에 대한 경각심과 국가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의 경우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둘째, 경제 면에 있어서는 한국 산업의 발전상 및 우수성, 국민 개개인의 근면과 절약의 필요성 등을 담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인천공항 건설이나 서울 지하철의 노선 확장 공사 등의 경과 및 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다시 뛰자! 코리아!〉(1998)를 비롯하여 〈IMF는 지금부터〉(1998), 〈위기를 기회로〉(1998)처럼 'IMF 사태'가 발생한 1997년 11월 이후에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나 국가적·국민적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작품들도 만들어졌다.

셋째, 사회 면에서는 여전히 공공 질서의 준수 또는 범죄 및 화재 예방, 노사 화합이나 청소년 계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듯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연 보호의 시급함을 역설하거나 정보화 사회의 생활 변화와 적응 사례를 제시하는 작품들도 기획·제작되었다. 〈맑은 물 맑은 공기〉(1990), 〈강을 살리자〉(1991), 〈우리는 정보 가족〉(1991), 〈쓰레기 종량제 그 후…〉(1995)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문화 면의 경우,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국 특유의 자연환경이나 고유의 전통을 문화재를 비롯한 유무형의 다양한 예술적 대상을 통해 소개하는 사례가 변함없이 주류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부류의 작품들은 여전히 해외 홍보용으로 기획·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동아시아 게임'(1993) 시리즈, 〈대전 너른 벌에 희망찬 기운〉(1993), '광주 비엔날레'(1996) 시리즈 등 국제적 규모의 체육대회를 둘러싼 기본적인 정보 및 여기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상이나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의 준비 과정, 진행 상황 등을 요약하여 전하는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국립영화제작소의 문화영화는, 제작 과정에서 16mm 필름 및 비디오가 쓰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35mm 필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러닝 타임에 있어서는, 여러 시간대를 포함하는 가운데 10분 전후와 20분 전후의 작품이 주종을 이루다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국내 홍보용은 10분에, 해외 홍보용은 20분에 다소 못 미치게 완성되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1980년대의 경향을 이어받아, 1990년대 문화영화의 화면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다 컬러로 구성되었다. 또한 소재나 주제가 겹치는 사례는 있었으나 아예 시리즈물로 기획되는 예는 많지 않았으며, 기록영화나 계몽영화의 스타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간혹 단막극 양식이나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 UN 연설

감독 김상연
재생시간 15분 48초
관리번호 CEN0005087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와 순방 외교

감독 김상연
재생시간 28분 18초
관리번호 CEN0005015



김대중 대통령 일본 방문

감독 박성도
재생시간 15분 18초
관리번호 CEN0005007



시련과 영광

감독 이지완
재생시간 1시간 41분
관리번호 CEN0005724~CEN0005728



아 대한민국

감독 이지완
재생시간 1시간 42분 29초
관리번호 CEN0005815~CEN0005819



다시 뛰자! 코리아!

감독 강명준
재생시간 9분 41초
관리번호 CEN0005108



IMF는 지금부터

감독 김동준
재생시간 9분 28초
관리번호 CEN0005851



위기를 기회로

감독 손성화
재생시간 9분 35초
관리번호 CEN0006556



맑은 물 맑은 공기

감독 김승훈
재생시간 7분 41초
관리번호 CEN0005394



강을 살리자

감독 김승훈
재생시간 7분 42초
관리번호 CEN0004853



우리는 정보 가족

감독 김금동
재생시간 7분 1초
관리번호 CEN0006537



쓰레기 종량제 그 후…

감독 박종철
재생시간 5분 52초
관리번호 CEN0005813



동아시아 게임

감독 박순구
재생시간 21분 13초
관리번호 CEN0005361



대전 너른 벌에 희망찬 기운

감독 이창호
재생시간 16분 16초
관리번호 CEN0005913



광주 비엔날레

감독 김준연
재생시간 29분 38초
관리번호 CEN0004922~
CEN0004923

Ⅳ

영화해설

1950년대

〈자유의 소리〉(1957) 044
〈교통안전〉(1958) 048
〈우리의 국회〉(1959) 052

1960년대

〈피어린 600리〉(1962) 056
〈112〉(1963) 060
〈배격해야 할 풍조〉(1965) 064
〈나라살림 내집살림〉(1967) 068

1970년대

〈산업시리즈(시멘트공업)〉(1970) 072
〈보람찬 내일〉(1972) 076
〈쌀〉(1975) 080
〈한국의 종교〉(1978) 084

1980년대

〈인플레를 잡는 길〉(1982) 088
〈씨름〉(1984) 094
〈북괴 금강산댐 건설〉(1987) 098
〈지구촌의 축제〉(1988) 102

1990년대

〈우리는 정보 가족〉(1991) 106
〈쓰레기 종량제 그 후…〉(1995) 110
〈다시 뛰자! 코리아!〉(1997) 114